

내전세자금대출 같길 멀어

임대인 계약 꺼려 조건에 맞는 집 구하기 힘들고 심사 기간도 너무 길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뭐하나.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지.” LH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신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조건에 맞는 집 구하기와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 전세들도 씨가 말랐는데 LH와 계약하고 하면 임대인들이 거의 꺼려한다는 설명이다. 이유는 임대인의 채권납부 등 자기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도 한 몫 한다.

여기에 LH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임주자), 중개사의 필요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귀찮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신분증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는 ▲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임주자의 무사한 준수사약 각서 ▲대항력 유지 확인서 ▲전세임대주택지원 서약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입대료 자동이체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역시 ▲사업자등록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통장사본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중계수수료 영수증 등이 요구된다.

집을 얻기 까지 소요되는 심사 시간도 문제다.

임차인이 겨우 힘들게 LH전세임대가 되는 집을 찾는다 해도 전세임대 주택계약신청서를 승인이 나올때 까지 2~3일, LH 위임 법무사와 계약을 날짜를 잡는데 까지 1~2일 등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전세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최소 3주 후부터 입주 지급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임대인의 경우 이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법무사들의 경우 계약 날짜와 시간을 임대인의 사정과 관계 없이 법무사가 통보하는 날짜에 임대인이 무조건 맞춰야만 돼 원성이 높

다.

또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하면 번잡하는 임대인들도 있어 입주 하는 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까다로운 지원대상 주택조건도 집을 얻는데 애를 먹는다.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2인 가구 70㎡, 3인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60㎡까지 지원 가능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한 임차인은 “어무래도 기간 지원이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래도 소외계층을 위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LH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 놓을 집을 계약해 놓고 선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LH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전북지역 공급물량은 1,110호로 알려졌다. /신광영기자



노출의 계절 몸짱되세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마트 영등포점 일렉트로마트 매장에서 모델이 일렉트로맨 운동 보조제를 선보이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에 초점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의 올해 하반기 주택·토지 분야의 경제 정책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임대주택을 늘려 수요와 공급 균형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급 시기와 물량을 앞 당기고,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 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주택·토지 분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주택분야의 핵심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강화다.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도한 분양 열기와 분양 시장 호조에 편승

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위기가 어남에 따라 집값대출보증을 강화한 것이다.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의 고분양가 행진이 주춤하고 투기성 청약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집값 대출 보증 규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면서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진수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 경제분야 지원사업 설명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9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도전관에서 사회적 경제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 간 협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사업’ (이하 융복합 사업)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6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안내한다.

‘융복합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융·복합 자원들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규 시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평가를 통해 최대 50백만원의 사업모델 개발비를 지원한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청의짜이’고 도전자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소셜벤처 사업과 계획

을 가진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총 4개 부문(솔루션,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글로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선·본선·결선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부문별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창업부문 예선심사 통과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사전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신광영기자

전북 수출, 대기업형 업종 제외하면 큰 폭 성장

무역협회 전북본부 5월 조사결과 전월대비 2.6%p 개선

전북 수출, 대기업형 업종 제외하면 큰 폭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영준)에 따르면 2016년 5월 전라북도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할 때 2.6%p 개선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밀화학 원료 분야의 수출관할지 변경 외에 올해 들어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38.0%, 51백만 달러 감소) 및 자동차

부품(-22.6%, 11백만 달러 감소)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 중 대기업형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및 동 부품, 선박류 등을 제외할 경우 전북의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7.8%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영국의 EU 탈

퇴로 인한 우리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자동차 부품 수출 및 농약 및 의약품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여서 더욱 근심의 골이 깊다”며 “하지만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며, 유예기간 내에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할 경우 브렉시트에 의한 관세효과 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이스타항공, 정비사 공개 채용

이스타항공(대표 김경식이) 항공기 정비사를 공개 채용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APG 정비사(항공기 전체 점검), AVIONICS 정비사(항공전자 및 계기) 등 두 부문에서 근무할 항공정비사를 7월3일까지 모집한다.

공통 지원자격은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직은 해당 부문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자, 신입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 B737NG 한정자격 소지자 및 어학능력 우수자는 우대

한다.

이스타항공은 정비본부 내 정비팀, 정비품질팀, 정비기술팀, 정비계획팀을 운영하면서 최상의 비행안전운행을 위한 정비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지원서 접수와 세부 모집전형은 이스타항공 리쿠르트 홈페이지(<https://recruiteastarjet.com>)와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및 접수 가능하며, 7월3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후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진단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신광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